□ 10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행사 및 2기 민주노총 활동계획 분석

마지노선에 걸린 실업률, 돌파구 마련하라

노동시간 20% 감소시 2백만개 고용효과 창출 · · · 고용보험 기금, 부정축재 환수 등으로 충당해야

지난 1일 2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소속 노동자 1만8천여명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학생들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108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본 행사에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현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와 함께 하지 않는 정책들만 펴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힌 대로 5월말 이후 총파업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초계획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IMF 재협상과 무대책적인 해고중단 등"을 전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은 최루탄을 쏘아가며 무리하게 거리 행진의 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 전경 등 30여명이 부상당해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번 노동절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2기 지도부는 지난 1기와 달리 다소 과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노사정 합의안의 해결방식에서 엿볼 수 있다. 민주노총 2기 지도부는 "노사정 합의안에 결코 합의한 것이 아니다"며 "단지 커다란 몇 개의 항목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 뿐이며, 이후 대의원 대회에서 조인되어 인정될 때 비로소 합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해 놓고 왜 번복하느냐는 정부측의 입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 세부사항, 부당 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약속' 등 잠정적인 합의안을 지키지도 않는다"며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기만한 것이므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 지난 1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108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명동으로의 거리행진이 경찰의 저지로 어렵게되자 도로를 점거하며 대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고영주 사무총장은 "1백30여개 업종에 근로자파견제가 허용됐다"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가장 심각한 자동차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전력 · 통신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투쟁이 5월말 이후 총파업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가 부도설이 나돌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IMF의 요구안 '기업의 구조조정' 및 '고금리 정책'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실질 실업자가 3백50만명에 이르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더이상 IMF의 요구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고 사무총장은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20% 감축하면, 즉 노동시간을 주 47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일 경우 2백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주 38-39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심지어는 기업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분 만큼 정부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3천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을 최소 20조원으로 늘려야 하며 이는 IMF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고 재벌총수의 부정축재 환수, 그리고 군비 축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일들은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지난 노사정합의안의 진실에 대한 범국민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범국민적인 홍보로 민주노총의 5월말 이후 총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지난번 노사정 합의 때처럼 언론에 매도당해 국민들로부터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월 '노동악법 개악반대'를 위한 총파업 때 민주노총 내부 갈등으로 파업 효과가 극히 적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내부결속 강화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파업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한국노총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공동 투쟁의 가능성도 타진해야 한다.

이러한 산적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총파업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일각의 시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런지 민주노총의 향후 사업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현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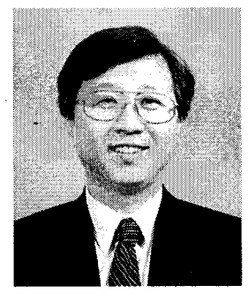
강 단 시 론

사회 이끌 대학의 참모습

최근들어 우리대학에 관계된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다.

얼마전 본교에 출강하는 모대학 교수가 던진 첫 화두다. "경희대학이 움직이고 있는 기류를, 즉 캠퍼스 곳곳에 기가 모여들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이다. 전학기에는 별로 느낄 수 없었던 살아 역동하는 기류를 느끼는 데, 정작 캠퍼스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못 느끼는 것 같다"는 핀잔 이었다.

50년의 긴 세월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한결같이 성장을 거듭해온 터이라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국내 굴지의 사학으로 성장해 있지만, 반세기에 이룩한 경이로운 발전에만 도취되어 우리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시대를 맞이하고서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아쉬움으로 남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제 경희대학은 수세기 역사를 지닌 대학들과 어깨를 겨루는 세계속의 대학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21세기의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구성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진정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구성원이 되려고 땀흘려 노력하고 정진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소 재 선
〈법학과 교수〉

국내의 대학평가 결과만 가지고 연연할 수 없는 것은, 한국대학의 형편과 위상이 다른 어떤 분야 보다도 세계적 수준에서 형편없이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월드컵 축구는 16강이 목표인데 한국대학은 과연 어느 수준이 목표이며, 언제까지 대학은 국가의 뒤떨어진 정책의 뒷전에서 꼭두각시 노릇만 해야 하는가 말이다. 이제 우리도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외칠게 아니라 대학에 속한 구성원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 앞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에 대하여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학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국가의 위기를 예견하지도 못하고 극복하는데 마저 뒷전에 서 있다면, 대학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수년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마치 교육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쟁적이고 분주하게 세월을 보냈고, 그런 와중에 국가와 기업의 경영은 그동안 대학에서 검증없이 대량 배출한 부실한 인재들에 의해서 망가져 내려 급기야는 IMF의 국난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대학이 환란의 주범은 아닐지라도 공범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현재 진상이 조사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장관 몇명의 과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국난의 위기에 대한 책임이 대학에는 없다고 하기엔 너무도 부끄러운 변명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들도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창학 반세기의 역사로 십수세기를 발전해 온 세계적인 명문대학들과 겨루어 경쟁력을 키우고 나라의 장래를 이끌 참 지도자를 키우는 대학이기 위하여,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이 바뀌어 양적으로 만이 아니고 질적으로도 진정 뜨고 부상하는 대학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 단신

4 · 19 정신계승과 청년학생의 역할 모색

지난 4월 17일 오후 6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연이 있었다. 약 90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는 올해로 38주년을 맞는 4 · 19의 정신계승과 현시기 청년학생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권 전위원장은 "IMF는 세계 지배의 논리로 미국이라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측은 정리해고라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미 독일, 영국 등의 유럽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해고가 아님이 밝혀졌다"며 정리해고라는 방법이 IMF를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시기 청년학생의 역할에 대해서는 "청년은 아름답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 "라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청년학생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4 · 19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보다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열심히 살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4일 도원동 철거 반대 집회 우리학교 학생 13명 연행

지난 4월 24일 도원동에서는 '골리앗(철탑망루)' 철거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항의 집회에 참가했다가 강제 연행된 우리학교 학생들은 김봉석(경제 95), 최재범(경영 94), 김규철(경통 97), 황의택(경통 98), 임지욱(국문 93), 임우종(국문 97), 염창근(국문 96), 주정현(신방 96), 이영욱(의료경영 98), 윤성희(정행 97), 이재형(정행 97), 이규철(정행 98), 김원희(치의 94) 모두 13명이다.

이들중 11명은 다음날인 25일 즉결심판으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26일 훈방조치됐다. 또한, 박상우(사학 97)군은 집회 도중 부상을 당해 지난 1일 경희의료원에서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다.

□ 학생운동 대토론회를 다녀와서

학생운동의 '객관적 평가' 시도

지난 4월 27 · 28일 양일에 걸쳐 연대 무악극장에서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위한 학생운동 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학생운동 진영은 96년 연대사태와 97년 한대사태를 계기로 학생운동이 많은 어려움과 모순에 봉착해 있음을 자각하고 학생운동 대토론회를 통해 많은 변혁을 시도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토론회는 그 어느때와도 다른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연대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그동안 학생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대중들과의 괴리였다"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짚어 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학생운동의 문제점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패널 선정시 학생회 외곽에서 대중운동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의 제 1주제는 '남한 사회의 변화된 여건속에서 학생운동의 현재적 위치에 대한 진단'이고, 제 2주제는 '21세기를 맞이하는 학생운동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첫째날 제 1주제의 토론에서는 그동안 많은 학생운동 관련 대토론회의 결론들과 비슷하게 학생운동이 대중운동과 괴리되어 있고, 각 운동 진영간의 공동 행보를 위한 공통의 이해 기반이나 인식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날 진행되었던 제 2주제는 각 대중 운동 진영이 바라본 학생운동의 문제점과 정체성 찾기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각 대중 운동 진영의 공통된 의견은 "학생회가 권력집단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여러 분야의 대중운동과 연대하여 많은 활동을 폭넓게 해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나온 의견이 기획 단계부터 반영된 행사였다. 그러나 약 20명의 인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토론회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규모면에서 열악했다. 〈김수란 기자〉

고객이 OK할 때까지-
ok! SK

한국경제를 감싸는 힘을 아십니까?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는 에너지 대표기업, SK주식회사
1962년 국내최초로 정유회사를 설립하여, 가난한 조국의 에너지산업에 불을 지핀 SK주식회사—
단일공장으로는 세계최대인 울산콤플렉스에서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석유류제품, LPG, 도시가스 등을 공급하는 크나큰 사명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SK주식회사는 해외에너지 개발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화학 대표기업, SK주식회사
1970년 방향족 제조시설, 1972년 나프타분해시설 가동을 시작으로 이땅의 석유화학시대를 개막한 SK주식회사—
이제, SK주식회사는 생물공학, 정밀화학과 고분자 신소재분야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경제가 재기할 수 있는 화학의 힘, SK주식회사에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화학을 대표하는 SK주식회사 -
조국의 경제를 되살리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힘 —
SK 주식회사
http://www.skcorp.com

SK 엔크린 SK ZIC

★기획제작 : SK주식회사 홍보실 황인성 / 제일기획 CD오세진 AD장원호 CW최문석 GD원명진 홍요한 AE이동기 문제인 이승목